

기혼 기독교여성의 원가족 관계패턴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성숙도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문 에 스 더* 백 선 아**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혼 기독교여성의 원가족 관계패턴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영적성숙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혼 기독교여성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가족 관계패턴은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갈등대처방식을 매개변수로 투입했을 때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영적성숙도는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회피를 제외한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이 영적성숙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기혼 기독교여성의 결혼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영적성숙도를 통해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기혼 기독교여성, 원가족 관계패턴, 결혼안정성,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

* 아가페CBT센터 실장, 제1저자

** 서울한영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서울한영대학교 문에스터의 박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지도교수: 백선아)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결혼은 인간이 맺는 대인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친밀한 관계로, 혈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제도이다(권수영 등, 2020). 이는 개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발달 과업이다(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결혼은 단순한 법적·사회적 계약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적 관계로 인식되며, 부부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영적 동반자로 부름받은 존재이다(문진형, 2021). 이러한 언약적 결혼관계는 부부가 갈등 상황 속에서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돕고, 자녀에게 신앙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한다(강병문, 2001).

결혼을 통해 형성된 부부는 새로운 가족체계를 이루는 동시에 각자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관계 양식을 결혼관계로 가져오게 된다.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개인이 최초로 경험하는 관계의 장으로서, 의사소통 방식과 애정 표현, 갈등의 생성과 해결 방식 등 다양한 관계패턴이 형성되는 근원이 된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14). 이러한 경험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이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며(김유숙, 전영주, 김요환, 2017), 생애 전반에 걸쳐 개인의 성격 형성과 정서적 반응 양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주, 김영혜, 2015). 특히 원가족 안에서 형성된 관계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결혼관계에 반복되거나 투사되는 경향이 있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adshaw, 2006; Luquet, 2004).

결혼안정성은 혼인관계가 단순히 유지되는지를 넘어, 부부 간의 정서적 헌신과 상호 만족감, 갈등 상황에서의 관계 유지 의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수정, 정윤아, 2021; 박서영, 이지은, 2022). 외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배우자 간 정서적 유대가 약하거나 이혼 의향이 높은 경우, 해당 결혼은 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심리적 의지와 헌신이 높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정적인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와 위기를 어떻게 조율하고 대처하느냐는 결혼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노진숙 등, 2014), 갈등과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결혼생활의 안정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김진순, 2022; 김진순, 오윤선, 2023).

결혼생활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요소이며, 갈등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혼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능적이고 성숙한 갈등대처는 부

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면, 미성숙한 대처 방식이나 반복적인 갈등 실패는 정서적 거리감을 심화시키고 가족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김은희, 박현숙, 2022). 원가족 안에서 학습된 갈등대처방식은 결혼 이후 부부 간 갈등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강학중, 유영주, 2003). 그러나 원가족 경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오현주 등, 2013).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신앙은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기독교 신앙은 감각적이고 초기적인 신앙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적성숙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지니며(이준선, 2014; 이해주, 2015), 영적성숙은 갈등 상황에서 인내와 용서, 헌신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가치들을 삶에 통합하려는 부부일수록 결혼생활의 만족과 안정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all & Heaton, 1997; Mackey & O'Brien, 1995), 부부가 공유하는 종교적 활동의 빈도와 신앙 태도의 일치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지은, 윤정훈, 2021). 특히 신앙 수준 그 자체보다 신앙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일관성이 결혼의 질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정수빈, 박세진, 2023).

기독교 가정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신앙 성숙의 차이와 연결되기도 하며(이종숙, 2012), 기혼 기독교여성의 경우 신앙적 태도와 실천이 갈등 완화와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경, 2010). 또한 가정 내에서 정서적 유대와 신앙 전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적성숙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있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임계순, 송영, 2020).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관계패턴과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결혼안정성을 설명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기독교여성을 대상으로 원가족 관계패턴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나아가 영적성숙도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떠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원가족 관계패턴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원가족 또는 방위 가족은 개인이 출생 이후 부모 및 형제자매와 함께 성장하며 최초로 관계를 경험하는 가족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통해 형성하는 생식가족 이전 단계의 가족으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삶의 토대를 형성하는 근원적 환경이다(유경화, 2021). 원가족은 근원가족, 출생가족 등으로도 지칭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사회화 장(場)으로 이해된다(김태현, 김경자, 2004). 특히 원가족은 애착 형성, 보호 경험, 규범과 가치 습득, 정서 표현 방식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후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두연, 2022).

원가족은 단순한 혈연 집단을 넘어 개인이 심리적·정서적 소속감을 형성해 온 관계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Hovestadt et al., 1985). 개인은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친밀감의 허용 범위, 갈등 인식 및 대처 방식 등을 학습하며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와 부부관계에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유숙 등, 2017). Bradshaw(2006)는 원가족에서 형성된 정서적 경험이 무의식적 신념 구조로 내면화되어 이후 가족관계에서도 반복되거나 투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애착과 관계 형성의 기초를 습득한다(Rovers et al., 2000). 원가족은 개인의 가족적·문화적·종교적 경험이 축적되는 공간이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정서 반응과 관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정문자, 전연진, 2004). 특히 가족 내에서 경험한 부정적 상호작용은 성인기 관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이준선, 2014). 따라서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정서 조절 전략과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원종숙, 류진아, 2024).

원가족에서 형성된 관계 경험은 성인기 갈등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방식은 개인의 관계 행동과 정서 반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험은 부부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태현, 전길양, 2002). 대인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 간 관계 등 다양한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비교적 안정된 관계 패턴으로 조직된다(윤지희, 정남운, 2004; 김안나, 정남운, 2016). Lebow 등(2020)은 원가족 경험이 성인기의 정서 반응과 부부관계 역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Johnson(2021)은 유년기 애착 경

험이 성인기의 갈등대처방식과 정서 조절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원가족에서 형성된 관계 패턴은 결혼 이후 핵가족 체계에서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Hollis(2015)는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부부의 침실에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각자의 부모가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의 관계 경험이 현재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반복 강박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복 강박은 과거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익숙한 관계패턴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최수진, 황성훈, 2019). 원가족 관계패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정신역동 이론과 가족체계 이론에서 발전해 왔다. Freud(2003)는 유아기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 성인기의 행동과 관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Bowlby(2005)는 초기 애착 경험이 이후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Satir(1964)는 가족 경험을 ‘가족의 청사진’으로 설명하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 경험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이해하며 원가족에서 형성된 정서적 경험이 세대 간 전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Bowen, 2022; Brown & Errington, 2024; Papero, 2020).

기독교적 관점에서 원가족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초로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된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밀도 있게 경험된다(Wynn, 1999). 성경은 가정을 신앙 전수의 중심 공동체로 제시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강조한다(신 6:7). 기독교 전통에서도 가정을 ‘작은 교회’로 이해하며 원가족은 신앙 경험이 형성되는 중요한 공동체로 기능한다(이준선, 2012).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양자됨의 신학을 통해, 혈연 중심의 원가족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가족 개념을 제시한다(갈 4:6; 롬 8:14-17). 기독교 상담 연구에서도 원가족 경험은 중요한 심리적 영적 변수로 다루어진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신앙 태도와 영적 성숙에도 연결된다(김기환, 2018). 따라서 원가족 관계 패턴은 개인의 정서 경험과 대인관계, 결혼생활뿐 아니라 신앙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원가족은 개인의 관계패턴과 정서 반응,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며 이러한 관계 경험은 결혼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관계 경험이 신앙 안에서 성찰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시된다.

2) 결혼안정성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는 제도이다.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을 넘어 가족 형성과 사회 유지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며 결혼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혼안정성은 단순히 결혼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지속하려는 심리적 태도와 관계 유지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결혼안정성은 일반적으로 결혼의 질과 결혼의 지속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설명된다(Karney & Bradbury, 2005). 결혼의 질은 결혼만족, 결혼행복, 결혼적응 등 부부가 경험하는 정서적 만족을 의미하며 결혼의 지속성은 이혼이나 별거 없이 결혼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결혼안정성은 이러한 지속성 중심으로 정의되었으며 배우자의 사망을 제외하고 결혼이 유지되는 상태를 안정적 결혼으로 간주하였다(김미숙, 1989).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결혼안정성을 단순한 결과가 아닌 결혼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포함하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Booth 등(1983)은 결혼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결혼 유지 경향의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규범 등이 결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득성 등, 2021). Levinger(1976)는 결혼 유지 여부가 관계에 대한 유인,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 그리고 관계 외적 대안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결혼 유지 동기는 약화될 수 있다. Holman 등(1994) 또한 실제 대안의 존재보다 개인이 인식하는 가능성이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부부 간 상호작용 역시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Gottman(1994)은 부부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갈등 해결 방식이 결혼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결혼안정성은 결혼 유지 의지와 책임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김영희, 1999; 박성은, 2010).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적 관계로 이해된다(창 2:18-25; 마 19:4-6). 이러한 이해는 결혼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헌신과 책임에 기반한 영적 관계로 인식하게 하며 결혼 유지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결혼을 사랑과 헌신, 용서를 실천하는 관계로 이해한다(전요섭, 2009). 성경 속 사례 또한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며 동역 관계를 형성한 사

례로, 수직적 신앙 관계와 수평적 부부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결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종교성이 결혼안정성과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lsinger & Wilson, 1984; Schumm & Silliman, 1997). 한은경(2003)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의 균형이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결혼안정성은 개인적 만족이나 외적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 상호작용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신앙적·영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다층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은 결혼안정성을 이해함에 있어 용서와 헌신, 언약적 책임이라는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결혼관계의 지속과 회복 가능성을 보다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3) 영적성숙도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영적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 삶 전반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 성장 과정으로 이해된다(박덕영, 2018; 오성춘, 1994). 선행 신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영적인 성장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해 왔다. Sanders(2007)는 영적성숙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설명하였으며 Fowler(1981)는 인간 삶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관계적 과정으로 이해하며,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영적성숙이 개인 내면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관계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Carter(1975)와 Tan(2004)은 영적성숙을 사고, 감정, 행동이 성경적 가치와 일치되는 전인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Ellison(1983)은 영적성숙을 심리적·사회적·신앙적 요소가 통합된 개념으로 제시하며, 이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신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실현해 나간다고 보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적성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설명된다(한은경, 2003). 오윤선(2014)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근거로 영적성숙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신앙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 정서의 조절과 수용, 신앙적 결단에 따른 실천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구조를 의미한다(김은실, 2006).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와 사회 속

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신앙의 가치를 실천한다(박신미, 2005).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리적 안정과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영적성숙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아지고 정서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강희천, 2000; 염남희, 2007). 또한 영적성숙은 적극적 문제 해결과 긍정적 대처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라형선, 김보람, 2019).

종합하면, 기독교적 영적성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전인적 성장 과정이며, 개인의 내적 안정뿐 아니라 관계적 성숙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영적성숙은 신자가 갈등 상황과 삶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의 안정성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적성숙도를 기혼 기독교 여성의 결혼안정성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탐색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갈등은 개인 간의 목표와 가치가 충돌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Collins, Laursen, & Mortensen, 1997).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원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두 개인이 함께 생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유희남, 김영희, 2011). 그러나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우정, 2011). 갈등대처방식(conflict coping style)은 개인이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 갈등은 일상적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혼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정금희, 이해은, 2022; Driver & Gottman, 2004).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 전략을 넘어,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조절하고 관계를 유지와 회복하기 위한 내적 자원으로 이해된다.

갈등 상황에서 개인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처 방식은 부부 간 의사소통, 정서적 친밀감, 상호 신뢰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연우, 변상해, 2019). 부부관계의 핵심 조절 변인으로 송말희(1990)는 갈등대처행동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과 회피와 억압과 같은 부정적 대응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정열과 최장원(2018)은 자원과 목표의 상충으로 발생하는 부부 갈등에 대처하기 위

한 행동 양식으로 정의하고, Gottman(1994)은 결혼의 성공 여부는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가족 내 사건과 함께 새로운 변화 요구가 부과될 경우, 가족체계 안에 누적되어 있던 사전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스트레스 경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백선아, 2012). Rice(2012)는 이러한 갈등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부관계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Rahim(2011)이 제시한 다섯 유형 중 통합과 타협 방식은 관계 유지에 가장 적응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이 이성적이고 협력적인 대처 방식이 결혼만족과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회피와 공격적 표현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최광현, 2011; 황지인 등, 2014).

종합하면 갈등대처방식은 부부관계의 안정성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부부 갈등은 관계를 파기할 이유가 아니라 회복과 헌신을 실천할 기회로 재해석된다(Wolters & Goheen, 2007). 갈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관계의 왜곡으로 이해(창 3장)되기에 기도와 말씀 묵상, 공동체적 지지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김경은, 2015). 갈등대처방식을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하게 하며,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방식이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을 연결하는 핵심매개변인으로 설정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네 가지 변인인 원가족 관계패턴, 결혼안정성,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의 측정도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조사방법은 전국의 20세 이상 기혼 기독교여성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25일(화)~4월 14일(월)까지 Google에서 제작한 on-line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총 330명의 자료를 회수하고 불성실한 응답자가 없으므로 모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 관계패턴 척도(FOS-5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가족 관계패턴 척도는 Hovestadt 등(1985)이 개발한 원가족 척도(FOS: Family of Origin Scale, 1985)를 기초로 한국 정서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최현미(1997)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총 55문항의 FOS-55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등 8개 하위요인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현미(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였으며, 연구의 조사도구 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이 .98로 나타났다.

(2) 결혼안정성 척도(MII)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 Johnson과 Edwards(1983)의 결혼불안정성 지표(MII: Marital Instability Index, 1983)를 기초로 정은희(2004)가 김미숙(1989)과 장춘미(2001)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총 12문항의 MII는 단일차원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은희(2004)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의 조사도구 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이 .93으로 나타났다.

(3) 영적성숙도 척도(SMI)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적성숙도 척도는 Ellison(1983)이 개발한 영적 성숙 척도(SMI: Ellison's Spiritual Maturity Index, 1983)를 이준선(2014)이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0문항의 SMI는 단일차원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준선(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의 조사도구 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이 .93으로 나타났다.

(4) 갈등대처방식 척도(F-cop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McCubbin, Larson, Olson 등(1982)의 가족대처전략 척도(F-copes) 그리고 Lazarus와 Folkman(1984), 송말희(1990)등의 척도를 기초로 수정한 최규련(1994)이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의 F-copes는 이성적 대처, 회피,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의 3개 하위요인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89였으며, 본 연구의 조사도구 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이 .7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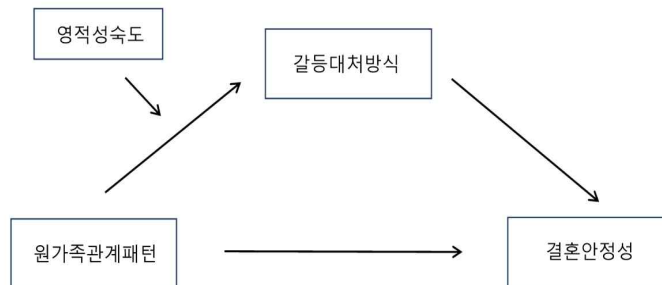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척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원가족 관계패턴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2, 8, 10, 11, 12*, 14,	16	0.98
		16, 17*, 18, 21, 22*,		
		23, 24*, 28, 29, 33		
	갈등해소	1*, 3*, 4, 5*, 9*, 25, 36*	7	
	분리와 상실의 수용	6, 13*, 15*, 19, 20*, 30	6	
	가족 내의 허용성	26*, 27*, 31*, 32*	4	
	가족의 화목	44*, 48, 49, 50*, 52*, 54*	6	
	공동체의식	7, 39, 41, 42, 43, 46, 51, 53	8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37, 38*, 40*	3		
가족의 공평성	34, 35, 45*, 47*, 55*	5		
결혼안정성		1*, 2*, 3, 4*, 5*, 6,	12	0.93
		7, 8*, 9*, 10*, 11*, 12		
영적성숙도		1, 2, 3, 4, 5, 6, 7, 8,	30	0.93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갈등대처 방식	이성적 대처	1, 8*, 12*, 14, 15*	5	0.72
	회피	2, 5*, 6*, 11, 13*	5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3*, 4, 7, 9*, 10*, 16*	6	
총계			113	

*역산채점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자료분석 및 절차

본 연구는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 이하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셋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Model 1을 사용하였으며, 유의한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Johnson-Neyman 분석(Preacher & Bauer, 2006)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odel 7을 사용하였다. 모든 매개 및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표 2>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111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07명(32.4%), 60대 90명(27.3%), 30대 21명(6.4%), 20대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137명(41.5%), 전문대학 졸업 68명(20.6%), 중학교 졸업 이하 60명(18.2%), 4년제 졸업 학사가 52명(15.8%), 대학원생 이상이 13명(3.9%)이었다. 신앙연수는 31년 이상 112명(33.9%), 모태 102명(30.9%), 11년-20년 52명(15.8%), 21년-30년 49명(14.8%), 10년이하 15명(4.5%)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형은 연애가 198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매+연애 78명(23.6%), 중매 45명(13.6%), 기타 9명(2.7%)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94명(89.1%), 기타 29명(8.8%), 재혼 7명(2.1%)이었다. 결혼기간은 11년-20년 98명(29.7%), 21년-30년은 91명(27.6%)과 31년이상 91명(27.6%)으로 같았으며, 6년-10년 31명(9.4%), 5년이하 19명(5.8%)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가 232명(70.3%), 부부 57명(17.3%), 기타 27명(8.2%)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188명(57.0%), 1명이 69명(17.3%), 3명은 49명(14.8%), 자녀가 없는 경우는 12명(3.6%)으로 나타났다. 본인직업에 대해서는 기타 131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취업이 67명(20.3%), 사무·기술직이 51명(15.5%), 전문관리직 42명(12.7%), 서비스·판매직 39명(11.8%)으로 나타났다. 소득형태는 남편 외벌이 134명(40.6%), 부부 맞벌이 133명(40.3%)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기타 42명(12.7%), 아내 외벌이가 21명(6.4%)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0)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	0.3
	30대	21	6.4
	40대	111	33.6
	50대	107	32.4
	60대 이상	90	27.3
결혼유형	총매	45	13.6
	연애	198	60
	총매+연애	78	23.6
	기타	9	2.7
교육정도	중졸 이하	60	18.2
	고졸	137	41.5
	전문대졸	68	20.6
	대졸	52	15.8
	대학원 이상	13	3.9
신앙연수	모태신앙	102	30.9
	10년 이하	15	4.5
	11년-20년	52	15.8
	21년-30년	49	14.8
	31년 이상	112	33.9
결혼상태	기혼	294	89.1
	재혼	7	2.1
	기타	29	8.8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결혼기간	5년 이하	19	5.8
	6년-10년	31	9.4
	11년-20년	98	29.7
	21년-30년	91	27.6
	31년 이상	91	27.6
	가족형태	부부	57
부부+자녀		232	70.3
부모님+부부+자녀		14	4.2
기타		27	8.2
자녀 수	0명	12	3.6
	1명	69	20.9
	2명	188	57
	3명	49	14.8
	4명 이상	12	3.6
	본인 직업	사무-기술직	51
전문관리직		42	12.7
서비스-판매직		39	11.8
비취업		67	20.3
기타		131	39.7
소득형태	부부 맞벌이	133	40.3
	남편 외벌이	134	40.6
	아내 외벌이	21	6.4
	기타	42	12.7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으며, 왜도(skewness) 지수는 -.88~.94로 첨도(kurtosis) 지수는 -.48~1.59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기준(절대값 2와 7 미만)을 충족하였다. 주요 변인의 평균은 결혼안정성이 3.81(SD=.91)로 가장 높았고, 원가족 관계패턴은 3.50(SD=.67), 갈등대처방식은 3.79(SD=.61), 영적성숙도는 2.16(SD=.73)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N=330)

구분	M	SD	왜도	첨도
원가족 관계패턴	3.50	.67	-.37	-.14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3.25	.85	-.22	-.46
갈등해소	3.18	.91	-.31	-.48
분리와 상실의 수용	3.44	.78	-.39	.05
가족 내의 허용성	3.79	.87	-.79	.39
가족의 화목	3.72	.86	-.53	-.13
공동체의식	3.22	.69	-.12	-.16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3.93	.73	-.60	.15
가족의 공평성	3.39	.84	-.14	-.43
결혼안정성	3.81	.91	-.69	.05
영적성숙도	2.16	.73	.94	1.59
갈등대처방식	3.79	.61	-.51	.45
이성적 대처	3.40	.88	-.31	-.10
회피	3.62	.71	-.30	.42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4.18	.64	-.88	.72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모형에 의한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 결과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은 하위변인에 따라 서로 정적 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 p<.01$). 원가족 관계패턴의 하위변인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r=.17, p<.01$), 갈등해소($r=.19, p<.01$), 가족 내의 허용성($r=.18, p<.01$), 가족의 화목($r=.18, p<.01$), 가족의 공평성($r=.22, p<.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원가족 관계패턴과 영적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원가족 관계패턴의 하위변인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에서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1, p<.05$). 이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낮을지라도 영적성숙의 수준은 더 깊어지거나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31, $p < .01$), 하위변인인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r = .28$, $p < .01$), 갈등해소($r = .25$, $p < .01$), 분리와 상실의 수용($r = .23$, $p < .01$), 가족 내의 허용성($r = .36$, $p < .01$), 가족의 화목($r = .27$, $p < .01$), 공동체 의식($r = .18$, $p < .01$), 확대 가족 내의 독립성($r = .21$, $p < .01$), 가족의 공평성($r = .27$, $p < .01$)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의 하위변인 중 이성적 대처와 원가족 관계패턴의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r = .18$, $p < .01$), 갈등해소($r = .16$, $p < .01$), 분리와 상실의 수용($r = .16$, $p < .01$), 가족 내의 허용성($r = .26$, $p < .01$), 가족의 화목($r = .12$, $p < .05$), 확대 가족 내의 독립성($r = .11$, $p < .05$), 가족의 공평성($r = .19$, $p < .01$)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갈등대처방식의 하위변인 중 회피와 원가족 관계패턴의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r = .21$, $p < .01$), 갈등해소($r = .18$, $p < .01$), 분리와 상실의 수용($r = .14$, $p < .05$), 가족 내의 허용성($r = .17$, $p < .01$), 가족의 화목($r = .14$, $p < .01$), 공동체 의식($r = .21$, $p < .01$), 가족의 공평성($r = .17$, $p < .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확대 가족내의 독립성과 갈등대처방식의 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은 원가족 관계패턴의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r = .28$, $p < .01$), 갈등해소($r = .25$, $p < .01$), 분리와 상실의 수용($r = .20$, $p < .01$), 가족 내의 허용성($r = .33$, $p < .01$), 가족의 화목($r = .28$, $p < .01$), 공동체 의식($r = .17$, $p < .01$), 확대 가족 내의 독립성($r = .25$, $p < .01$), 가족의 공평성($r = .25$,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안정성과 영적성숙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19$, $p < .01$), 결혼안정성과 갈등대처방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3$, $p < .01$). 결혼안정성과 갈등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이성적 대처($r = .32$, $p < .01$), 회피($r = .48$, $p < .01$),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r = .37$,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영적성숙도와 갈등대처방식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2$, $p < .05$). 영적성숙도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이성적 대처($r = -.12$, $p < .05$), 회피($r = -.23$, $p < .01$),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r = -.33$,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92**	1													
3	.90**	.85**	1												
4	.82**	.77**	.72**	1											
5	.87**	.76**	.71**	.64**	1										
6	.89**	.76**	.77**	.63**	.79**	1									
7	.83**	.82**	.77**	.72**	.61**	.69**	1								
8	.51**	.32**	.34**	.26**	.44**	.44**	.21**	1							
9	.81**	.77**	.75**	.61**	.72**	.81**	.68**	.34**	1						
10	.18**	.17**	.19**	0.09	.18**	.20**	0.1	0.1	.22**	1					
11	-0.09	-.11*	-0.05	-0.06	-0.1	-0.02	-0.1	-0.06	-0.06	-.19**	1				
12	.31**	.28**	.25**	.23**	.36**	.27**	.18**	.21**	.27**	.43**	-.26**	1			
13	.20**	.18**	.16**	.16**	.26**	.16**	.12*	.11*	.19**	.32**	-.12*	.86**	1		
14	.19**	.21**	.18**	.14*	.17**	.14**	.21**	0.07	.17**	.48**	-.23**	.42**	.33**	1	
15	.31**	.28**	.25**	.20**	.33**	.28**	.17**	.25**	.25**	.37**	-.33**	.72**	.27**	.34**	1

* $p < .05$, ** $p < .01$

1. 원가족 관계패턴, 2.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3. 갈등해소, 4. 분리와 상실의 수용, 5. 가족 내의 허용성, 6. 가족의 화목, 7. 공동체의식, 8.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9. 가족의 공평성, 10. 결혼안정성, 11. 영적성숙도, 12. 갈등대처방식, 13. 이성적 대처, 14. 회피, 15.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4) 매개효과 검증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가족 관계패턴은 갈등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B=.28, t=5.89, p<.001$), 갈등대처방식은 결혼안정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61, t=7.84, p<.001$). 그러나 원가족 관계패턴은 결혼안정성에는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1.02, p>.05$). 갈등대처방식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갈등대처방식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CI: .08~.13).

〈표 5〉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로	B	se	β	t	LLCI*	ULCI**
원가족 관계패턴 → 갈등대처방식	.28	.05	.31	5.89***	.19	.37
갈등대처방식 → 결혼안정성	.61	.08	.41	7.84***	-.46	.77
원가족 관계패턴 → 결혼안정성	.07	.07	.05	1.02	.07	.21

*** $p < .001$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6〉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변수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매개변수	.13	.03	.08	.13

5) 조절효과 검증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Model 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영적성숙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12, t=2.82, p < .05$). 원가족 관계패턴의 관계에서 이성적 대처와 감정 및 행동 표출과는 영적성숙도에 의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나($B=.19, t=2.25, p < .05$; $B=.12, t=2.13, p < .05$) 회피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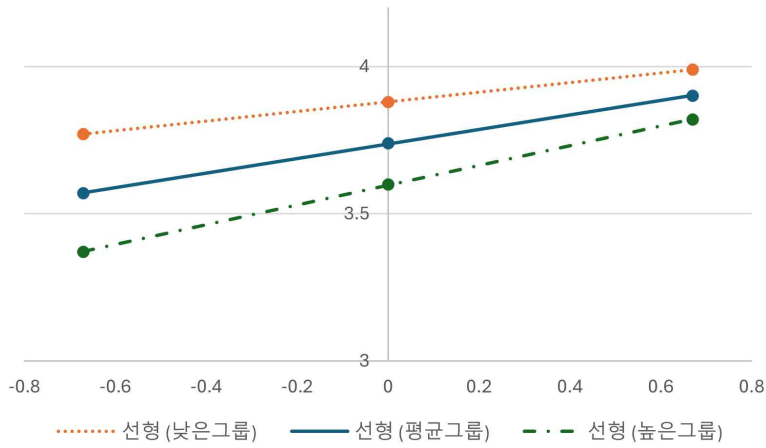
〈표 7〉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에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변수		B	SE	t	LLCI*	ULCI**
갈등 대처방식	원가족 관계패턴	.25	.04	6.02***	.17	.33
	영적성숙도	-.19	.04	-5.03***	-.26	-.12
	상호작용량	.12	.05	2.82*	.02	.21
F=24.32 $R^2=.43$ $\Delta R^2=.18$						
이성적 대처	원가족 관계패턴	.28	.07	3.90***	.14	.42
	영적성숙도	-.11	.07	-1.65	-.24	.02
	상호작용량	.19	.09	2.25*	.02	.36
F=7.77 $R^2=.26$ $\Delta R^2=.07$						
회피	원가족 관계패턴	.19	.06	3.32***	.08	.30
	영적성숙도	-.21	.05	-4.02***	-.31	-.11
	상호작용량	-.03	.07	.51	-.10	.17
F=10.15 $R^2=.29$ $\Delta R^2=.09$						
부정적감정 및 행동표출	원가족 관계패턴	.28	.05	5.91***	.19	.37
	영적성숙도	-.25	.04	-5.89***	-.37	-.17
	상호작용량	.12	.06	2.13*	.01	.23
F=27.19 $R^2=.45$ $\Delta R^2=.20$						

영적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원가족 관계패턴이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표 8〉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탐색한 결과 영적성숙도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영적성숙도	B	se	t	LLCI*	ULCI**
-1SD	.16	.05	3.16***	.06	.26
M	.25	.04	6.02***	.17	.33
+1SD	.33	.06	5.68***	.2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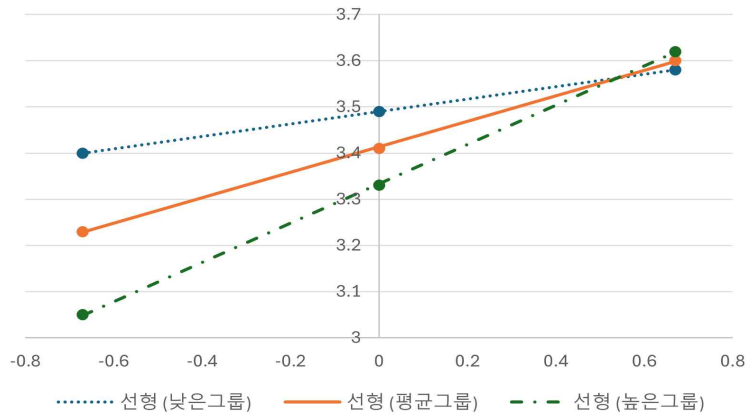


(그림 2)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영적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원가족 관계패턴이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표 9>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탐색한 결과 영적성숙도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적성숙도가 높은 집단은 원가족 관계패턴에 따라서 갈등 관계대처능력의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영적성숙도가 낮은 집단은 원가족 가족패턴에 따라 더 갈등대처방식의 이성적 대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이성적대처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영적성숙도	B	se	t	LLCI [†]	ULCI ^{**}
-1SD	.13	.09	1.53	-.04	.31
M	.28	.07	3.90 ^{***}	.14	.42
+1SD	.42	.10	4.14 ^{***}	.2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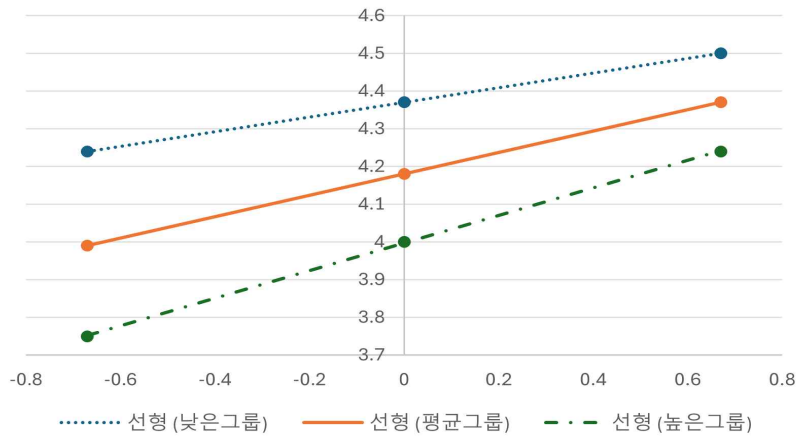


(그림 3)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이성적대처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영적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원가족 관계패턴이 갈등대처방식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에 미치는 영향을 <표 10>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탐색한 결과 영적성숙도가 95% 신뢰구간에서 -1SD일 때는 0을 포함하여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일 경우와 +1SD일 때는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28, t=3.90, p<.001; B=.42, t=4.14, p<.001).

<표 10>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감정 및 행동 표출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영적성숙도	B	se	t	LLCI*	ULCI**
-1SD	.19	.06	3.22***	.07	.31
M	.28	.05	5.91***	.19	.37
+1SD	.37	.07	5.47***	.24	.50



(그림 4)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감정 및 행동 표출에 대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이 영적성숙도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신뢰구간 95%,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원가족 관계패턴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간접효과를 영적성숙도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지수는 .10로,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이 포함되어(CI: -.01~.20)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구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Index	Boot SE	LLCI*	ULCI**
영적성숙도	.10	.05	-.01	.20

다음으로 영적성숙도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하여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적성숙도가 -1SD 수준일 경우와 평균일 때 그리고 +1SD일 경우 95% 신뢰구간 내에서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6, C: .06~.26; B=.25, C: .17~.33; B=.33, C: .22~.45). 이로써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갈등대처방식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12〉 영적성숙도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영적성숙도	B	se	t	LLCI*	ULCI**
-1SD	.16	.05	3.16***	.06	.26
M	.25	.04	6.02***	.17	.33
+1SD	.33	.06	5.68***	.22	.45

위의 〈표 7〉에 제시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영적성숙도의 간접효과가 검증된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만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표 13〉에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원가족관계패턴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간접효과를 영적성숙도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모형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10로,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CI: .01~.1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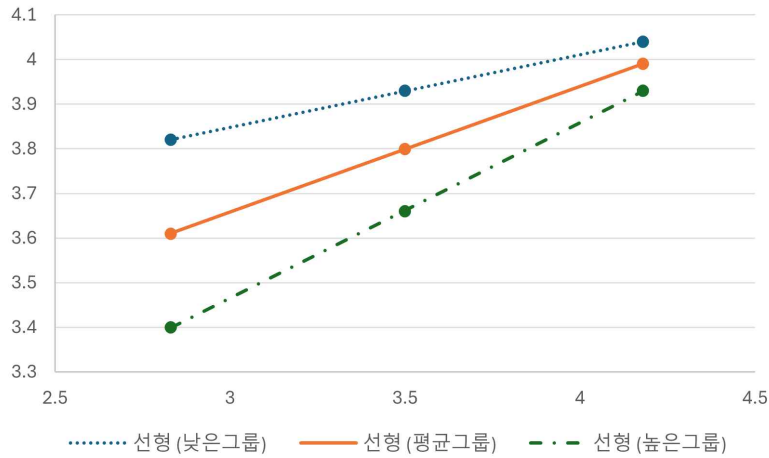
〈표 13〉 연구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Index	Boot SE	LLCI*	ULCI**
영적성숙도	.10	.04	.01	.18

다음으로 영적성숙도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하여 〈표 14〉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적성숙도가 (M-1SD)과 (M+1SD) 수준 모두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16, C: .05~.28; B=.28, C: .19~.37; B=.39, C: .26~.52). 원가족 관계패턴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갈등대처방식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14〉 영적성숙도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영적성숙도	B	se	t	LLCI*	ULCI**
-1SD	.16	.06	2.83***	.05	.28
M	.28	.05	6.03***	.19	.37
+1SD	.39	.07	5.99***	.26	.52



(그림 5) 영적성숙도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III. 닫는 글

1. 논의

본 연구는 기혼 기독교여성을 대상으로 원가족 관계패턴, 갈등대처방식, 영적성숙도,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가족 관계패턴, 결혼안정성,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

먼저 기혼 기독교여성의 원가족 관계패턴, 결혼안정성, 영적성숙도, 갈등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가족 관계패턴의 하위요인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가족 내 허용성, 가족의 화목, 가족의 공평성은 결혼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원가족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이 이후 성인기의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상호작용 경험이 성인기의 결혼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남순현(2000)과 정은희(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에서 경험한 건강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가 개인의 관계 형성 방식과 갈등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 경험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상호 존중의 경험은 이후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족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가족 관계패턴과 영적성숙도의 관계에서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영적성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의 관계적 건강성이 낮을수록 개인의 영적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관계패턴과 영적성숙도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윤태성(2019)과 이준선(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원가족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결핍이나 갈등 경험이 개인으로 하여금 종교적 신념이나 영적 자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나 어려움이 종교적 신앙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박성자(199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서는 원가족 관계패턴의 하위요인들이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원가족 관계패턴이 건강할수록 갈등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갈등대처 방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승희와 김은영(2014), 박미화와 홍지영(201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과의 정적 상관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원종숙과 류진아(202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2)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간의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대처방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갈등대처방식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개인의 갈등대처방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갈등대처방식이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방식은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응 방식으로 내면화되고, 이러한 대응 방식이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혼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 박태영과 문정화(2013), 정은희(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갈등 자체보다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이 관계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서연우와 변상해(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긍정적인 갈등대처 방식인 타협, 문제 중심 해결, 감정 표현 등은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회피나 공격적 반응과 같은 부정적 대처 방식은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대처방식을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원가족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계 패턴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김윤정과 양혜정(202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3)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관계에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관계에서 영적성숙도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영적성숙도는 갈등대처방식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원가족 관계패턴을 경험하였더라도 개인의 영적성숙도 수준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적성숙도가 높은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 반응에만 의존하기보다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영적성숙은 자기조절, 의미추구, 내적 성찰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영적

성숙이 개인의 정서조절과 관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영적성숙은 사랑, 인내, 용서와 같은 신앙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적성숙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수준을 넘어 관계적 행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서 영적성숙도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영적성숙도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관계패턴이 갈등대처방식을 통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영적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김윤정과 양혜정(2021), 윤태성(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영적성숙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원가족 관계패턴이 갈등대처방식을 통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적성숙이 개인의 내면적 자원을 강화하여 과거의 부정적인 가족 경험이 현재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심리적 관점에서 영적성숙도는 자기성찰, 정서조절, 공감능력을 강화하여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인지적 재구성과 정서조절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성경이 강조하는 용서, 인내, 자기부인, 화해의 가치가 갈등대처 방식에 내면화되기 때문에 해석된다(마 18:21-22, 엡 4:2-3).

영적성숙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갈등을 신앙적 성찰의 기회로 해석하며, 문제중심적·화해지향적 대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기독교 신앙이 부부관계에서 단순한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갈등조절과 관계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박옥자와 윤운성(2018), 임계순과 송영(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적성숙은 원가족 경험이라는 과거 요인과 현재의 관계 행동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며,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 기독교여성을 대상으로 원가족 관계패턴, 갈등대처방식, 영적성숙도, 결혼안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영적성숙도의 조

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를 단순한 직접 영향 관계로 설명하기보다 갈등대처방식을 매개로 한 관계 과정 속에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원가족 관계패턴은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갈등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경험이 결혼관계의 결과를 직접 결정짓기보다는 개인의 갈등 대응 방식과 관계 기술을 형성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과거의 가족 경험뿐 아니라 현재의 관계 과정과 상호작용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영적성숙도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원가족 관계패턴과 갈등대처 방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영적성숙도는 갈등대처방식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개인의 신앙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적성숙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원가족 경험의 영향에만 의존하기보다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갈등대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적성숙이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 아니라 관계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학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원가족 관계패턴과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영적성숙도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확장성을 가진다. 이는 동일한 원가족 관계패턴을 가진 개인이라 하더라도 영적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결혼관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영적성숙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수준을 넘어 관계적 행동과 결혼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영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영적성숙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사랑, 인내, 용서와 같은 신앙적 가치가 관계 회복과 갈등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신앙적 가치가 실제 부부관계에서 갈등대처 방식과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과 상담 실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신앙 배경을 포함한 연구대상을 통해 연구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분포에서는 40~50대 연령층과 비교적 장기간의 신앙생활을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과 신앙 배경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였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질적 연구 및 심층면담을 병행한 연구가 요구되며, 종단 연구를 통해 영적성숙도의 변화 과정과 결혼안정성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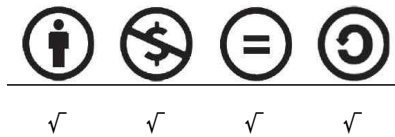
셋째, 기독교 상담 실천에서는 영적성숙을 촉진하는 상담적 개입이 중요하다. 신앙적 성찰과 영적 성장 과정은 개인이 갈등 상황에서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한 원가족 관계패턴의 이해와 함께 갈등대처능력 및 영적성숙을 증진시키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신앙실천, 공동체 참여, 영적 자기인식과 같은 신앙의 다양한 차원이 부부관계와 갈등 해결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영적성숙과 결혼관계 간의 관계를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심층적인 탐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논문 투고일: 2026년 01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6년 03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3월 11일



【참고문헌】

- 강병문 (2001). 주요 가족병리현상에 대한 병리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기독교교육연구**, 12(1), 7-37.
- 강학중, 유영주 (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 강희천 (2000). **종교심리와 기독교 교육**. 대한기독교서회.
- 권수영, 박태영, 신혜종, 안미옥, 오화철, 이인수, 이진희, 이현숙, 이화자, 전명희, 정병호, 조은숙, 최규련 (2020). **부부·가족상담 핸드북**. 학지사.
- 김경은 (2015). 사회적 화해를 위한 영성지도의 긍정적 역할. **신학과 실천**, 43, 267-292.
- 김경주, 김영혜 (2015).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93-112.
- 김기환 (2018).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득성, 권윤아, 신사원 (2021). 즐거운 부부활동과 협력적 부부대처가 성적 친밀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초기 중국 도시 여성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HER)**, 59(1), 45-58. <https://doi.org/10.6115/fer.2021.004>
- 김미경 (2010). 중년기 부부 위기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5, 137-159. <https://doi.org/10.17841/jocag.2010.15.137>
- 김미숙 (1989).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23-35.
- 김사라형선, 김보람 (2019).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3), 67-90. <https://doi.org/10.23909/KJCC.2019.08.30.3.67>
- 김수정, 정윤아 (2021). 결혼안정성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가족과 문화**, 33(2), 67-89.
- 김승희, 김은영 (2014). 신학생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79-102.
- 김안나, 정남운 (2016). 자기대상 욕구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패턴 분석: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모형을 이용하여. **상담학연구**, 17(1), 65-88. <https://doi.org/10.15703/kjc.17.1.201602.65>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우정 (2011).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3(1), 45-63.
- 김유숙, 전영주, 김요환 (2017). **가족평가**. 학지사.
- 김윤정, 양혜정(2021).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
기성찰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0(2), 227-251.
<https://doi.org/10.20497/jwce.2021.10.2.227>
- 김은실 (2006). 영적 성숙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고찰. **기독교신학연구**, 12(2), 45-63.
- 김은희, 박현숙 (2022). 부부갈등 대처방식과 가족체계변화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상담**,
30(2), 1-27.
- 김진순 (2022).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족과 문화**, 34(4), 45-67.
- 김진순, 오윤선 (2023).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 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 **복음과 상담**, 31(1), 37-72.
<https://doi.org/10.17841/jocag.2023.31.1.37>
- 김태현, 전길양 (2002). 결혼특성과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성과의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40(5), 97-115.
- 김태현, 김경자 (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6(1), 3-35.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1-15.
- 노진숙, 함경애, 김미옥, 김환구, 천성문 (2014). 기혼자들의 결혼유지와 이혼결정 과정
분석. **재활심리연구**, 21(1), 97-115.
- 대한성서공회 (2020). **개역개정 성경**.
- 문진형 (2021). 돕는 배필의 목적 : 장년 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73, 725-747.
- 박덕영 (2018).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교회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두연 (2022). 부부갈등 관계패턴과 원가족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박미화, 홍지영(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117-138.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4.117>
- 박서영, 이지은 (2022). 배우자의 헌신과 갈등 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8, 1-25.
- 박성은 (2010). 별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관한 탐색. **한국가정복지학회지**, 31, 215-234.

- 박성자 (1993). 한국교회 여성의 신앙형태에 대한 여성신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신미 (2005). **기독교 교육과 성숙의 관계**.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영화, 고재홍 (2005). 결혼만족도와 갈등해결방식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23-137.
- 박옥자, 윤운성(2018). 한·일가정 다문화수용과 신앙성숙도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2), 5-30.
- 박태영, 문정화(2013).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과 대처전략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5(3), 233-249.
- 백선아 (2012). 노인부양스트레스 관련 예측변인들과 조정과정: FAAR 모델을 기반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연우, 변상해 (2019). 원가족 건강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19(20), 647-667.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0.647>
- 서정열, 최장원 (2018). 직업군인 배우자의 성장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343-356. <https://doi.org/10.5392/JKCA.2018.18.05.343>
- 염남희 (2007). 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우울 간의 관계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3), 133-148.
- 오성춘 (1994). 영적 성숙에 대한 신학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6, 25-46.
- 오윤선 (2014). 영적 성숙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9, 145-166.
- 오현주, 권정혜, 최승미, 조현 (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https://doi.org/10.18205/kpa.2013.18.1.001>
- 원종숙, 류진아 (2024).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여성연구**, 120(1), 175-204. <https://doi.org/10.33949/tws.2024.120.1.007>
- 유경화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래사회**, 12(1), 65-82. <https://doi.org/10.22987/jifso.2021.12.1.65>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14).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희남,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9(3), 141-158.

- 윤지희, 정남운 (2004).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13-635.
- 윤태성(2019). **성인중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옥선화 (2002). 부부관계유형과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HER)**, 40(4), 179-199.
- 이종숙 (2012). 기혼 기독교여성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선 (2012). 성화와 영적성숙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신학과 선교**, 28, 101-124.
- 이해주 (2015). 기독교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계순, 송영 (2020). 부모 양육 태도가 부모-자녀 간 세대 갈등에 미치는 영향: 신앙성숙도의 매개 효과. **생명과 말씀**, 28(3), 245-281. <https://doi.org/10.33135/srlt.2020.28.3.245>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전요섭 (2009). **성경에서 상담보기 상담으로 성경보기**. CLC.
- 정금희, 이해은 (2022). 부부갈등 회피 유형이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피 불일치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소통학보**, 21(1), 161-202.
- 정문자, 전연진 (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 간의 인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161-175.
- 정은희 (2004). 부부의 갈등해결방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0(3), 99-120.
- 정수빈, 박세진 (2023). 종교적 헌신성과 부부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상담학회지**, 34(2), 112-130
- 최광현 (2011). Hellinger의 가족세우기와 가족조각. **가족과 상담**, 1(1), 23-40.
- 최규련 (1994). 갈등대처방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수진, 황성훈 (2019). 생활사건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복적 부정 사고의 매개효과와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3), 399-419. <https://doi.org/10.33703/cbtk.2019.19.3.399>
- 최현미 (1997). 원가족척도연구: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은경 (2003). 신앙성숙도와 영적안녕 및 용서의 관계 연구. *상담과 심리연구*, 5(1), 77-95.
- 한지은, 윤정훈 (2021). 부부의 종교적 신념과 결혼만족도: 신앙 공유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족과 문화*, 33(3), 55-78.
-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6, 381-405.
- Booth, A., Johnson, D. R.,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387-394.
- Brown, J., & Errington, L. (2024).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nd practice: Illustration and critique revisite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45(1), 3-18. <https://doi.org/10.1002/anzf.1562>
- Bowen, M. (2022). **보웬 가족치료이론** (이화자 역,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중앙적성출판사. (원전 1978 출판).
- Bowlby, J. (2005).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2nd ed.).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Bradshaw, J. (2006). **가족: 버림받은 아이의 심리치료** (오제은 역, *The family*). 학지사. (원전 1988 출판).
- Call, V. R. A., & Heaton, T. B. (1997). Religious influence on marital stabil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382-392.
- Carter, J. D. (1975). Adams' theory of nouthetic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3), 188-195.
- Collins, W. A., Laursen, B., Mortensen, N., Luebker, C., & Ferreira, M.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Driver, J. L., & Gottman, J. M. (2004). Daily marital interactions and positive affect during marital conflict among newlywed couples. *Family Process*, 43(3), 301-314.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Filsinger, E. E., & Wilson, M. R. (1984). Religiosity, socioeconomic rewards, and family development: Predictors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 Marriage and the Family*, 46(3), 663-670.
- Freud, S. (2003).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J. Strachey, Trans.; Rev. ed.).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20).
- Fowler, J. W. (1981). **신앙의 발달 단계** (사미자 역, *Stages of faith*).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원전 1987 출판).
- Gottman, J.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Guilford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Hollis, J. (2015).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김현철 역, *The Middle passage*). 더퀘스트 길벗. (원전 1993 출판).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1), 46-52.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Johnson, S. M. (2021). *Attachment theory in practice: Emotionally focused therapy (EFT) with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Guilford Press.
- Karney, B. R., & Bradbury, T. N. (2005). Adapting to marriage: Declines i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P. Noller & J. A. Feeney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269-299).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bow, J., Chambers, A., & Breunlin, D. (2020) *Integrative systemic therapy in practice: A clinician's handbook*. APA Books
- Levinger, G. (2003).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In R. J. Davidson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Academic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6).
- Luquet, W. (2004). *Short-term couples therapy: The Imago model in*

- action*. Routledge.
- Mackey, R. A., & O'Brien, B. A. (1995). *Lasting marriages: Men and women growing together*. Praeger.
- McCubbin, H. I., Larson, A. S., & Olson, D. H. (1982). F-COPES: *Family coping strategies*. In D. H. Olson et al. (Eds.), *Family inventories* (pp. 22-26). University of Minnesota.
- Papero, D. V. (Ed.). (2020). *Handbook of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nd research methods*. Routledge.
- Preacher, K. J., Curran, P. J., & Bauer, D. J.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4), 437-448.
- Rahim, M. A. (2011).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4th ed.). Transaction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Rice, F. P. (2012).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s, and families* (7th ed.). McGraw-Hill.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Rovers, M. W., DesRoches, L., Hunter, P., & Taylor, B. (2000). A family of origin workshop: Process and evaluation. *The Family Journal, 8*(4), 368-375.
- Sanders, J. O. (2007). *Spiritual leadership*. Moody Publishers.
- Satir, V. (1982). The therapist and family therapy: Process model. In A. M. Horne & M. M. Ohlson (Eds.),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pp. 12-42). F. E. Peacock.
- Schumm, W. R., & Silliman, B. (1997). Changes in premarital counseling as related to older cohorts of married couple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3*(2), 98-102.
- Stinnett, N., & DeFrain, J. (2003). *Secrets of strong families*. Little, Brown.
- Tan, S. Y. (2004).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Rev. ed.). Baker Academic.
- Witte, J. (1998). Between sacrament and contract: Marriage as a covenant in John Calvin'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 32*, 9-75.
- Wolters, A. M., & Goheen, M. W. (2007).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Eerdmans.

Wynn, J. C. (1999). **가족치료와 목회사역** (문희경 역, *Generation to generation*). 솔로몬. (원전 1985 출판).

[Abstract]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Relationship Patterns
on Marital Stability in Married Christian Wome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Coping Style by Spiritual Maturity

Moon, Esther* Paik, Sun Ah**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relational patterns and marital stability among married Christian women, as well a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The participants were 330 married Christian women,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the PROCESS macro 4.2.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mily-of-origin relational patterns did not have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stability; however, when conflict coping styles were included as a mediator, a significant full mediating effect was found. Spiritual maturit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of-origin relational patterns and most subfactors of conflict coping styles, except for avoidance.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relational patterns and marital stability was significantly moderated by spiritual matur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way married Christian women cope with conflict plays a crucial role in marital stability, and that spiritual maturity can regulate rational coping as well as nega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expressions in conflict situations.

Key words: married Christian women, family-of-origin relational patterns, marital stability, spiritual maturity, conflict coping styles

* Agape Christ's Bride Training Center / Executive Director

** Seoul Hanyou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 Assistant Professor